

# ‘천재소녀’ 김효주 부활 신호탄

‘천재 소녀’ 김효주(23)가 US여자 오픈골프대회 최종일 눈부신 플레이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비록 연장전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김효주는 난도 높은 코스에서 3, 4라운드 연속 60대 타수를 적어내며 전성기 못지않은 경기력을 뽐냈다.

이번 대회에서 3, 4라운드에서 60대 타수를 친 선수는 김효주 말고는 없었다.

김효주는 그동안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헤맸다.

2014년 메이저대회 예비양 챔피언십 우승으로 화려하게 세계 무대에 등장한 데 이어 이듬해 JTBC 파운더스컵을 제패해 ‘차세대 여왕’으로 주목받았던 김효주는 2016년 퓨어실크바하마클래스 우승 이후 가파른 내리막을 탔다.

지난해 상급랭킹 38위까지 추락한 김효주는 올해는 8차례 LPGA투어 대회에서 세차례나 컷 탈락했고 한 번도 20위 이내 입상 없이 주로 하위권을 맴돌았다.

장기인 골은 아이언샷은 좌우로 흔들렸고 정교한 퍼트 역시 예리함을 잃었다.

이런 김효주가 재기의 조짐을 보인 것은 사실 US여자오픈에 앞서 치른 볼빅 챔피언십이다.

김효주는 간신히 컷을 통과하고 3라운드에서 74타를 쳐 꼴찌로 떨어졌지만

## LPGA US오픈 준우승 부진 털고 재기 발판 마련 ‘홀로서기’로 정신적 성장… 잃었던 자신감 회복

만, 최종 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몰아쳤다. 이날 김효주보다 더 낮은 스코어를 낸 선수는 65타를 친 2명뿐이었다.

김효주의 부활은 크게 세 가지 변화에서 비롯됐다. 첫째는 몸무게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해 김효주의 체중은 50kg 중반이었다. 한여름에는 50kg 초반까지 내려갔다.

전성기로 꼽는 2014년 김효주의 몸무게는 65kg까지 나갔다. 당시 김효주는 국내 무대에서 넘볼 수 없는 1인자였고 LPGA투어와 일본 무대 원정에서도 펼칠 날았다.

몸무게가 줄면서 샷에 힘이 실리지 않았고 결국 스윙이 흐트러지는 원인이 됐다.

김효주의 현재 체중은 62kg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성기 몸무게를 되찾지는 못했지만, 작년부터는 눈에 띄게 몸무게가 늘었다. 체중 증가는 자연스럽게 파워 증가와 스윙 안정으로 이어졌다.

물론 늘어난 체중은 근육량 위주다. 김효주는 “몸무게가 늘면서 쪼그라들

었던 비거리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나는 지난달 2주 동안 스승 한연희 코치와 스윙을 바로 잡았다는 사실이다.

한연희 코치는 “4월초에 한국에 온 김효주의 스윙을 점검했더니 드라이버든 아이언이든 백스윙 때 클럽 페이스가 앞어지는 현상이 아주 심했다. 그때는 시간이 별로 없어 제대로 손을 대지 못했다”고 말했다.

4월말에 다시 한국에 와서 2주 동안 한연희 감독의 지도를 받은 김효주는 예전 스윙을 어느 정도 되찾을 수 있었다.

US여자오픈 경기를 TV로 지켜본 한연희 코치는 “아직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지만 최악이었을 때보다는 눈에 띄게 나아졌다”면서 “무엇보다 이제는 어떻게 볼을 쳐야 하는지 알고 친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한 코치는 “비거리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던 듯하다”면서 “리디아 고, 박인비 등과 비교해봐도 비거리가 뒤지는 게 아니니 특기인 정교한 샷을 되찾으라고 조언했다”고 덧붙였다.

김효주가 긴 부진에서 벗어날 조짐은 정신적 변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김효주는 지난해 10월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을 마친 뒤 ‘홀로서기’를 선언했다.

시즌 내내 함께 다녔던 아버지에게 “내년부터는 혼자 투어를 다니겠다”는 뜻을 밝히고 허락을 받았다.

2살 위 언니가 당분간 함께 다니고 있지만 그림자처럼 들보주던 아버지와 결별을 김효주는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막상 아버지가 안 계시니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니다”라던 김효주지만 정신적으로 훌쩍 성장했다. 주변에서는 책임감과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표정도 눈에 띄게 밝아졌다.

US여자오픈 준우승은 이런 세 가지 변화가 비로소 효과를 내기 시작한 셈이다.

특히 김효주는 잃었던 자신감의 회복이라는 소עד까지 거뒀다.

김효주는 경기가 끝난 뒤 인터뷰에서 “그동안 걱정하신 아버지께서 앞으로 편안하게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자리로 돌아온 스윙과 체중, 그리고 홀로서기로 재기에 나선 김효주의 자신감이 묻어날 말이다.

/연합뉴스



“아쉽다”

김효주가 4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앨라배마주의 쇼얼 크리크 골프&컨트리클럽에서 열린 LPGA 투어 US여자오픈 4라운드 3번째 연장전(14번홀)에서 버디퍼트를 놓친 후 아쉬워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 안병훈 메모리얼 토너먼트 준우승

안병훈(27)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총상금 890만 달러)에서 선전하며 연장 승부를 펼쳤으나 아쉽게 첫 우승 기회를 놓쳤다.

안병훈은 3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더블린의 뷰어필드 빌리지 골프클럽(파72·7,392야드)에서 열린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합계 15언더파 273타로 브라이언 디쇼보, 카일 스텐리(미국)와 동률을 이루 연장전에 합류한 안병훈은 연장 두 번째 홀에서 디쇼보에게 패해 시즌 최고 성적을 거둔 데 만족해야 했다.

유럽프로골프투어에서는 2015년 BMW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하고 그해 신인상도 받은 안병훈은 PGA 투어에서는 아직 우승이 없다.

2016년 5월 취리히 클래식에서도 연장전 끝에 패한 안병훈은 투어 통산 두 번째 준우승에 만족하게 됐다.

안병훈은 18년 홀에서 열린 첫 번째 연장전에서 디쇼보와 나란히 파를 적어내 보기에 그친 스텐리를 먼저 따돌렸다.

같은 홀에서 이어진 두 번째 연장전에서 안병훈은 두 번째 샷을 어렵사리 홀 가까이 붙였으나 버디 퍼트를 집어 넣은 디쇼보에게 밀리고 말았다.

/연합뉴스

## 전남기술과학고 10년만에 전국 정상

### 제61회 전국여름철중별배드민턴 단체전 우승

‘주니어 대표 쌍두마차’ 김형중(3년), 박현승(2년)을 앞세운 전남 기술과학고 배드민턴이 10년만에 전국대회 우승 감격을 누렸다.

전남기술과학고는 최근 강진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1회 전국여름철 중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남자 고등부 단체전 결승전에서 서울체고를 3-0으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과학기술고는 올해 1월 밀양 배드민턴선수권대회 3위, 4월 봄철 배드민턴선수권대회 2위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배드민턴 명문고’로의 부활을 알렸다.

전남기술과학고가 전국규모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인 ‘윙크보이’ 이용대가 활약한 지난 2008년 봄철배드민턴선수권대회 이후 10년만이다.

결승전 상대 서울체고는 전남기술과학고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결승전 첫 단식에 나선 현 주니어 국가대표인 박현승은 놀라운 집중력과 한 수 위의 셔틀콕 컨트롤 장기를



전남기술과학고가 제61회 전국여름철중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남자 고등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앞세워 서울체고 김준형(2년)에 게 임스코어 2-0(21-9 21-13)으로 승리, 기선을 제압했다.

역시 주니어국가대표인 김형중도 두 번째 단식에서 날렵한 스트로크와 유연한 몸놀림으로 김형준(3년)에 2-1(16-21 21-13 21-15)로 역전승, 게임스코어 2-0을 만드는데 앞장섰다.

김원식(3년)-노민우(2년) 복식 조는 상대팀 김준형-김태환(3년) 조

에 2-1(21-15 8-21 21-14)로 승리, 게임스코어 3-0의 완벽한 승리를 마무리지었다.

황영욱 감독은 “전남기술과학고 배드민턴팀은 날이 갈수록 경기력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번 대회 우승으로 선수단의 사기가 올라간 만큼 오는 10월 전북에서 열리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 문체부장관배 전국어울림사이클대회

### 오늘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610명 참가

2018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어울림사이클대회가 5일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렸다.

장애인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이번 대회는 ‘화합과 어울림’을 주제로 개최되며 610여명(선수 410명, 자원봉사 90명, 운영요원 110명)이 3개 종목 7개 부에 참가한다.

종목은 거리에 따라 5.615km(서킷 1바퀴), 16.845km(서킷 3바퀴), 28.075km(서킷 5바퀴)로 구분되며, 5.615km 3개부, 16.845km 2개부, 28.075km 2개부 총 7개부가 치러진다.

4일 감독자 회의를 비롯해 코스 설정과 답사가 진행됐으며 5일 오전 9시 30분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기가 펼쳐진다.

5.615km 휠체어사이클 동호인부, 16.845km 핸드사이클 선수부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 주어지고, 16.845km 핸드사이클 선수부 여자 1위, 28.075km 사이클선수부 남자 1위, 28.075km 시각선수부 남자 1위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상이 주어진다.

/최진화 기자

## 전남장애인체육회 운영개선 평가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는 4일 영암공설운동장 회의실에서 제26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운영평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운영평가 회의에는 전남도청, 시·군장애인체육회, 22개 시·군 담당 직원, 경기단체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장애인체육회는 대회 성과와 미

진한 부분을 점검하고 시·군 및 경기단체에서 요구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평가회 앞서 도민체육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유공자에게 표창장 및 공로패 수여도 진행됐다.

심우천 전남도 스포츠산업과 팀장은 “2019년 대회에는 보다 많은 선수들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전매게시판**

우리 이웃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자우편 : jndn@chol.com

**결혼** ▲최환연(광산장학재단 사무국장)·민애자씨(장남준기군(교사), 오정택(여수중장비대표이사)·김미순씨(장녀 수정양(교사))=9일(토) 오전 11시 50분 서구 죽봉대로 12라페스타 2층 엘리제홀

**등산** ▲광주호산회=8일~10일(토) 한라산 영실 철쭉산행,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오후 9시20분출발(문화예술회관 경유)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010-4621-2166, 010-3633-3723.

**모집** ▲각화문화의집 프로그램 회원=바이올린교실(매주 토요일 오후 1시~오후 4시 30분), 하모니카(매주 화요일 오후 1시30분~오후 3시), 노래교실(매주 월요일 오후 3시~오후 4시30분) 등 수시 회원 모집, 광주 북구각화동 480-41번지 265-9337.

▲청춘FC 토요일회원모집=축구를 사랑하는 40~60대 모집. 토요일 오후 2시30분동강대학교인조구장. 감독 010-2684-4490.

▲디자인숍 제작 판매과정 수강생=천연비누, 천연화장품 강좌, 국내최초 디자인숍 국비지원 학원, 국제공인아로마테라피스트가직접 강의. 재료비 교재비 무료. 한마루학원 070-7801-8004.

**알림** ▲습관성도박차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치료및 병원위탁무료치료·성요양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527-3400

▲지역장애인 성인주·야간보호 서비스실시=월~금 오후 5~9시사랑모아주 간보호센터 385-0422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국번 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 면접상담은 광주시 동구 준법로3 대한법률구조공단광주지부 ▲광주해바라기이동센터=13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대상 긴급구조, 의료, 법률,심리치료 등 아동 성폭력 전달기관 232-1375 ▲지역주민 정신건강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5개아파트단지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소 525-1195.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엠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한국실버복지회생활법률무료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교민, 실버결혼, 이발, 주례서주기, 묘자리보주기 등(실버에 한함)011-9602

**謹 故人之冥福을 빕니다 弔**

故 김길용 님(74세) 창오,현오씨(부친상), 5일(화) 8시, 장지:영락공원, 특실 302분향소	故 김진자 님(57세) 송화승씨(모친상), 5일(화) 8시30분, 장지:하순 가족묘지, 특실 7분향소
故 박정자 님(94세) 윤길중,성명씨(모친상), 박영호,심재구씨(빙모상),5일(화) 8시, 장지:망월동묘역, 지하5분향소	故 김명순 님(91세) 노정섭,경선,문선,오성씨(모친상), 6일(수) 9시, 장지:망월동선영, 지하3분향소

故 갈호중 님(88세)  
양수,봉수씨(부친상), 김중환,김희수,류성태씨(빙부상),6일(수) 7시, 장지:임실 호국원, 특실 10분향소

그린강례식장(주) www.그린강례식장.com 24시간 대기 062) 250-4455

-0001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 미혼모 상담=미혼모로 임신해 무료 산전 후 진료 및 분만 혜택과 상담(임양, 양육) 서비스 제공,24시간 상담가능 080-733-1313, 222-9349